

2022 첫 번째 남태평양 섬 선교 이야기 섬김이 최병옥 정나영

새 해 인사가 늦었습니다.

피지에서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 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지에서는 오미크론의 확산 뿐 아니라 통가의 화산 폭발과 쓰나미 그리고 폭우와 홍수로 인하여 사망자와 농작물의 피해, 물가 상승, 정전과 단수로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의 강권하심과 여러분의 기도로 사역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1년 10월, 피지에서는 정부 지침으로 교회와 선교단체의 미접종 사역자들이 해임되고 리더십의 붕괴로 인하여 교회와 선교 베이스들이 문을 닫는 곳이 많았습니다. 현재도 상황은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베이스에서는 미접종자 사역자를 위한 공동 생활집을 급히 임대하여 온라인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리더십의 붕괴로 문이 닫힌 다른 지역의 ywam 베이스를 찾아 해임된 리더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자녀들이 거주할 임대 집 보증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시작한 제자훈련학교의 숙소와 강의실 임대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3주차 강의 기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재정으로 어려운 사역

자 가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제 책임 아래에 있는 20명의 사역자들과 자녀들 그리고 10명의 학생들이 당장 최소한 굶지 않도록 힘겹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후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때임에도 매월 재정을 보내주시는 믿음의 형제님 자매님들 그리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급히 큰 재정이 필요할 때 마다 특별히 재정을 보내주는 오랜 친구와 제자들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코로나 팬데믹과 봉쇄와 해고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저에게 주어진 사역을 모두 완수하였습니다. 사역자 리트릿, 제자 훈련 학교(DTS)와 Belt Seminar(성경 교습훈련), Kadavu 섬 전도여행, 교회 순회 사역, 마스크 나눔과 구호품 지원, Bible Core Course (성경연구과정), 사역자 리더십 훈련 등 주요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1월, 저희 부부가 코로나 양성 확진되었습니다.

이곳 피지도 오미크론으로 한 집 건너 한 집씩 걸리는 것 같습니다. 1월 2일부터 몸이 안 좋았습니다. 1월 6일 자가진단키트로 검사를 했는데 아내가 먼저 코로나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틀 후에는 제가 양성이 나왔습니다. 자가 테스트기를 사용할 경우 증상이 경미할 때는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확연히 나타날 때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콧물과 두통 그리고 몸살(근육통)과 기침 인후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삼일 동안은 밤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과 오금이 저리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상 초기에 혈압이 174/97로 올라가고 왼쪽 가슴에 바늘로 찌르는 증상이 나타났으며 림프절을 따라 귀 뒤쪽과 겨드랑이 우측 좌측으로 옮겨 다니며 통증이 있었습니다. 혈압 있는 분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기침과 인후통이 오래 갔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은 이삼일 몹시 아프고 일주일 만에 회복되는데 저희 부부는 한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아내는 잦은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딸 중에 한비는 목이 아프고 이틀정도 몸살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1주일 안에 회복된 것 같습니다. 막내 지혜는 얼굴 좌측에 피부발진이 있었지만 회복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가정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혼자 약 먹고 혼자 버티시면 안됩니다. 목사님과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1월 15일 통가 화산 폭발과 화산재

피지 시간으로 오후 4시경 큰 폭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지와 통가의 거리는 부산에서 신의주 거리 만큼 먼 곳임에도 그 소리는 바로 머리 위에서 치는 천둥소리 같았습니다. 화산 폭발 시 초당 70회의 번개가 쳤다고 합니다. 그 진동으로 통가에서 먼 곳으로 갈수록 쓰나미가 높여졌다고 합니다. 피지와 통가 사이에 수백개의 섬이 있는데 화산재로 농작물의 피해와 식수원이 오염되었습니다. 피지에도 최근 지진의 횡수가 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작은 섬 사역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1월 17일 DTS (제자훈련학교)를 열다.

작년 어느 날, 중국에서 사역하던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자기 고향에서 제자훈련학교를 열고 싶는데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자매가 학교를 여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리더들과 몇 차례의 모임을 갖고 제가 학교를 책임지기로 하고 제자훈련학교를 열었습니다. 자매님에게 학교 숙소 임대료를 지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학생 숙소를 준비하고 강의실을 준비하고 섬길 간사와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현재 학교 리더 자매와 5명의 사역자들 그리고 10명의 학생들이 현재 3주차 강의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는 변두리 빈민가에 위치합니다. 현재 폭우로 인하여 길과 마당 그리고 공동생활 집 안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에서 농작물과 식품을 갖다 주시는 고마운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역자들과 학생들이 12주간의 강의기간과 8주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훈련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1월 29일 - 31일 사역자 리트릿을 하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사역자들이 준비되도록 돕기 위해 해마다 열고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되며 사역자들을 격려하기위해 바닷가 근처 빌라를 빌려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리트릿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장소 대여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는 사역이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함께 섬기던 형제님(목사님)으로부터 오랜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회를 하시고 사모님은 일을 하시는데 모아 둔 선교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재정으로 장소 대여비도 내고 재정으로 어려운 원주민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사실 원주민 사역자들은 본인 식비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사역자들에게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에 닭과 소시지로 바비큐를 구워 섬겼습니다. 이번에는 14명의 사역자와 6명의 자녀들이 참석했습니다. DTS 사역자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2022년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요 계획을 세우고 팀을 조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2021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나누며 2022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비전을 공유하고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와 화해와 나눔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코로나에서 자가 격리가 끝난 후인 지라 몸은 힘들지만 저에게 맡겨진 법궤는 제가 지고 가야겠습니다.

2022년 주요 계획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피지의 333개의 섬들을 가능한 많이 방문하며 제자훈련을 하게 하소서.

성경연구학교(BCC)를 열어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성경교사를 양성하게 하소서.

훈련 된 청년들을 교회와 선교지로 파송하게 하소서.

사역과 성숙한 관계를 위해 의사소통과 연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게 하소서.

통가에 구호팀을 보내어 그들을 위로하게 하소서.

아시아에 선교 베이스 개척팀을 파송하게 하소서.

섬들과 섬을 이동할 때에 선박과 안전을 지켜 주소서.

가정 이야기

아들 은평이는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하고 올해 학교는 휴학하기로 했습니다. 자기 성장을 위한 자신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수원 할머니 집에 거하면서 수원 광교의 영어학원 시간 강사로 일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루어왔던 치아 교정 및 양약치료도 해야겠습니다. 한나는 한동대 기숙사에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온라인으로 영어도 가르치고 번역도 처음 해봤는데 3학년 1학기에 번역을 수강 신청해서 더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피지에서 저희와 함께 있는 셋째 한비와 막내 지혜는 지난 주 폭우와 홍수로 이번 주 학교는 휴교되었습니다. 한국에 홀로 계신 저의 모친께서 연세가 86세가 되셨습니다. 장남으로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혹 피지에서 제가 모실 수 있을까 했지만 지병이 있으셔서 이곳에서는 치료가 불가합니다. 올해는 은평이가 할머니 곁에 있어서 다행입니다.

최병욱 정나영 선교사 기도 제목

2022년 표어

The more I seek you, the more I find you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No one can carry your ark for you

아무도 너의 법궤를 대신 짊어질 수 없다. 주님의 부르심과 주어진 일은 힘들다고 누구에게 대신 맡길 수 없고 내가 짊어지고 가야겠습니다. 법궤는 축복입니다.

1.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예배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자녀들, 저희와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가정되게 하소서.

2. 제자훈련학교의 강사와 섬기는 간사들과 학생들이 성령에 민감하며 필요가 채워지며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게 하옵소서.(학교 리더로 섬기는 자매님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3. 사역에 필요한 5년 내에 생산 된 차체가 높은 4륜 차를 주소서.
지금까지 2007년식 도요타 7인승 Wish 중고차를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이제 고장이 많습니다. 사역지를 가려면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산과 골짜기 시냇가를 넘어야 합니다. 피지인들이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갑니다. (4륜 픽업이나 SUV필요)

4. 피지 333개의 섬마다 제자훈련학교를 열게 하소서. (2개의 팀으로 나누어 섬 전도여행을 갑니다. 교통비와 사역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선박을 통해 이동합니다.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5. 2월에 저희 가정의 비자를 연장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는 신청한지 7개월 만에 어렵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순조롭게 비자가 연장되게 하옵소서.

최병욱 정나영 선교사 드림

피지 YWAM 대표사역자 / YWAM YOUTH CENTER 책임자.

이 메 일 mercycbo@empas.com

전 화 (679) 932 0478

주 소 P.o box 1140 Sigatoka, Fiji Islands.

후 원 국민은행 203 24 0471 172 최병욱

미션펀드 https://missionfund.org/default.asp?cms_from=&partner=OMF